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October 2024 Issue | Vol. 74

SPECIAL POINTS OF INTEREST

- IMF, 필리핀 성장 전망 하향 조정 —page 1-2
- 부진한 외국인 직접 투자 흐름이 '슬로발리제이션'으로 이어질 것—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page 2-3
- 한국 대통령, 다음 주 필리핀 방문 예정 —page 3-4
- 바타안 자유무역지대, 아시아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할 준비 완료 —page 4-5
- 필리핀 '24, '25 성장, 동남아시아에서 2위 빠른 성장 예상 – 아므로 —page 5
- 필리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여지가 있다 — IMF —page 6-7

UPCOMING EVENTS

[Oct 24, 2024] 제13회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 | 레벨 업: 기술 향상. 규모 확대. 삶의 질 향상 — page 8

[Oct 18, 2024] A Joint Event of Rotary Intl D3810-BNI– KCCP|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행사 — page 9-10

IMF, 필리핀 성장 전망 하향 조정

October 03,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People shop for school supplies at a market in Quezon City, July 28, 2024. — PHILIPPINE STAR/ MIGUEL DE GUZMAN

국제통화기금(IMF)은 높은 물가 상승률이 국내 수요에 계속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어 필리핀의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다자기구는 올해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기존 6%에서 5.8%로 낮췄습니다. 또한, 2025년 GDP 성장률을 기존 6.2%에서 약간 낮춘 6.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MF의 성장 전망은 올해와 2025년에 대해 정부가 예상한 67% 및 6.57.5%의 GDP 전망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7월 전망에서의 하향 조정은 주로 민간 소비가 다소 둔화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리의 관점을 반영한 것입니다,"라고 IMF 대표단장 엘리프 아르바틀리 삭세가르드는 수요일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하향 조정 폭이 매우 작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상반기 민간 소비 성장률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고, 이 부분은 고물가, 특히 식품 가격 상승이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2분기에 6.3% 성장했으며, 이는 5분기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입니다. 그러나 가계 지출은 2분기에 전년 동기 5.5%에서 4.6% 증가하는 데 그쳐 여전히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식품 가격, 특히 쌀 가격을 낮추기 위한 비통화적 노력을 포함한 지속적인 조치들이 앞으로 소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삭세가르드 씨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성장 전망에 대한 위험이 하향세로 기울어져 있으며, 주요 경제국의 예상되는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공급 충격, 지정학적 긴장으로부터 비롯된 위험이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금융 여건 완화나 예상보다 빠른 민간 투자, 예를 들어 공공-민간 협력이나 더 큰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입이 이루어진다면 더 높은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삭세가르드 씨는 필리핀의 성장 전망이 여전히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6.1% 성장률은 매우 괜찮은 성장률입니다... 이는 상반기의 실적을 반영한 아주 작은 조정일 뿐입니다."

그녀는 또한 필리핀 경제가 풍부한 천연자원, 블루 경제, 그리고 인구 보너스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중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이러한 중기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한편, IMF는 2024년의 필리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3.3%, 2025년에는 3%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방코 센트럴 응 필리피나스(BSP)가 예상한 올해와 2025년 전체 물가 상승률인 각각 3.4%와 3.1%보다 다소 낮습니다. *[Cont. page 2]*

IMF, 필리핀 성장 전망 하향 조정

[Cont. from page 1]

"이는 식품 가격 하락과 핵심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의해 지원될 것입니다,"라고 삭세가르드 씨는 말했습니다.

삭세가르드 씨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위험이 반복되는 원자재 가격 충격과 잠재적인 공급 충격으로 인해 여전히 상향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의 결정적인 통화 긴축과 다른 조치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입 쌀에 대한 관세 인하와 다른 비통화적 조치들이 식품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했으며, 연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추가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점진적 감소'

IMF는 필리핀 중앙은행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목표 범위 내로 내려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하락하고, 소폭의 부정적 생산 격차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 금리를 점진적으로 계속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권고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8월 15일 회의에서 BSP(필리핀 중앙은행)는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기준 금리를 6.5%에서 25bp 인하해 6.25%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17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에서의 인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과 정책 설정에 대한 신중한 커뮤니케이션이 기대와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급 측 충격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삭세가르드 씨는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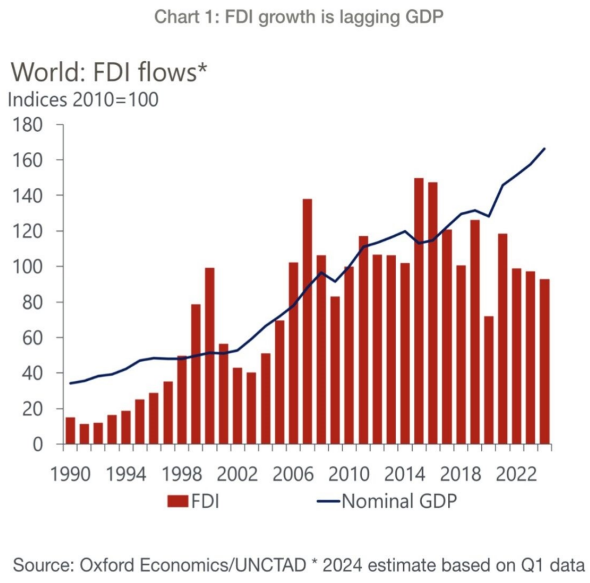
IMF의 필리핀 대표 라그나르 구드문드손은 BSP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향 및 하향 위험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0/03/625460/imf-trims-philippine-growth-forecasts/

부진한 외국인 직접 투자 흐름이 '슬로발리제이션'으로 이어질 것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October 03, 2024 | Ma. Stella F. Arnaldo | BusinessMirror



(Infograph courtesy Oxford Economics)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아시아에서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담 슬레이터는 새로운 논문에서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외국인 직접 투자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었습니다. 세계 FDI 흐름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약 13%씩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FDI 흐름은 1990년대 초반 1% 미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 10년 동안 약 2.5%로 급증했으며, 2017년까지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자료에 따르면 GDP의 약 2%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FDI 흐름은 절대적인 수치와 세계 GDP 비율 모두 감소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코 센트럴 응 필리피나스(BSP)는 최근 필리핀의 순 외국인 직접 투자(net FDI)가 2024년 상반기에 44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8% 증가한 수치라고 보고했습니다. 2024년 6월에만 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3년 6월의 5억 5500만 달러에서 3억 9400만 달러로 29%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usinessMirror의 "FDI 유입이 6월 4년 만에 최저치로 감소"를 참조하십시오. 2024년 9월 11일.) *[Cont. page 3]*

부진한 외국인 직접 투자 흐름이 '슬로발리제이션'으로 이어질 것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Cont. from page 2]

그린필드 프로젝트, 즉 외국인 투자자의 새로운 운영에 대한 FDI 전망은 밝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더 많이 성장하였으며, 중국에서 다른 아시아 경제와 미국으로의 유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산업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모호하여 제조업의 초기 그린필드 FDI 지출이 겨우 소폭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슬레이터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린필드 투자는 실제 경제로의 유입이 아니라 발표된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 FDI에 비해 미미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2023년 미국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기존 기업의 확장 및 새로운 기업 설립이 2억 6천만 달러의 연간 새로운 FDI 지출 중 131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2024년의 초기 지표는 글로벌 그린필드 투자 계획의 둔화를 시사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우리는 최근 글로벌 FDI의 둔화를 지난 수십 년 간의 급속한 세계화가 '슬로발리제이션'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약한 FDI는 무역 약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무역 및 투자 장벽 상승, 그리고 성장을 촉진하는 개방 무역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태도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최근 FDI 약화의 모든 요인이 반드시 성장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슬로발리제이션의 일반적인 과정—[여기에는 약한 FDI가 포함됩니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중소득 신흥 경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임을 시사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슬레이터는 FDI 감소세의 첫 번째 원인을 무역 및 투자 장벽의 상승으로 꼽으며, 이는 더 신중한 미국으로 인해 본토 중국과 같은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4년 2분기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최근 4분기 중 두 번째로 부정적이었고, 4분기 평균 유입은 제로였습니다—2022년 1분기에는 1천억 달러 이상이었죠...중국은 새로운 FDI 투자자에게 투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존 투자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요."

두 번째 요인은 보호주의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의 지리적 복잡성에서 이전의 상승세가 평탄해지는" 글로벌 가치 사슬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중 일부는 로봇 기술의 발전, 공급망 디지털화, 그리고 시장 기반의 산업 조직 변화(예: 시장과의 거리 단축에 대한 욕구)와 같은 요인을 반영하기도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금리로 인한 국경 간 인수합병(M&A) 둔화 또한 전 세계적인 FDI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모든 형태의 투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M&A 거래량 감소는 적어도 이와 관련된 증상일 뿐이며 글로벌 투자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요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슬레이터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0/03/tepid-fdi-flows-will-lead-to-slowbalization-oxford-economics/

한국 대통령, 다음 주 필리핀 방문 예정

October 03, 2024 | Joseph Pedrajas | Manila Bulletin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 국빈 방문은 마닐라와 서울 간의 이미 강력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은 10월 3일 목요일에 윤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이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첫 번째 방문이자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한국 대통령의 방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사관은 "이번 방문은 한국과 필리핀 간의 75년 외교 관계에서 중대한 순간을 의미하며, 우리 지도자 간의 강한 유대와 밀접한 관계를 상징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대, 안보, 경제, 개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President Marcos (left) meet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at the sidelines of the ASEAN Summit in Cambodia in 2022. (Photo courtesy of President Yoon)

대사관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과거의 성과를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파트너십과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9월 중순에 열린 모임에서 서울의 마닐라 대사인 이상화는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언급했습니다.
[Cont. page 4]

한국 대통령, 다음 주 필리핀 방문 예정

[Cont. from page 3]

이 대사는 "K-pop과 K-드라마에서 화장품과 요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외교뿐만 아니라 공유된 열정과 문화를 통해 강한 유대를 구축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지역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필리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필리핀의 서필리핀해에 대한 주권을 지키고 인도-태평양에서 국제 규범 기반 질서를 지지하는 데 있어 마닐라의 동맹국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이후 서필리핀해에 대한 입장을 최소 10차례 발표하여 항행의 자유와 비행의 자유, 그리고 국제법에 따른 규범 기반 질서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reiterate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이 정기적으로 양자 해양 대화를 하는 유일한 아세안(ASEAN) 국가이기도 합니다.

Source: https://mb.com.ph/2024/10/3/south-korean-president-to-visit-ph-next-week

바타안 자유무역지대, 아시아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할 준비 완료

October 03, 2024 | Edg Adrian A. Eva | BusinessWorld

바타안 자유무역지대(FAB)는 아시아의 주요 블록체인 허브 중 하나로 부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상당한 발전이 진행 중입니다.

FAB는 바타안 마리베레스를 위치한 1,700헥타르 규모의 무역 허브로, 필리핀의 무역 중심지이자 국내, 지역 및 글로벌 운송의 주요 환승 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허브 외에도, 렌즈, 명품 브랜드 액세서리, 스포츠 장비 등 다양한 글로벌 산업을 위한 제조 중심지로, 이 지역 내에서 거의 40,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RA 11453의 지침에 따라 FAB는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미래 기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조업 외에도 수정된 헌장에 의해 허용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타안을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의 고향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바타안 자유무역지대 관리청(AFAB)의 CEO인 모하메드 후세인 판간다만이 바타안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블록체인 총회 2일 차에서 말했습니다.

RA 11543 시행 5년 후, 판간다만은 지난해 발표된 해양 디지털 자산 라이선스(ODAL) 정책을 포함한 주요 발전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ODAL 정책의 주요 사항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라이선스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발급하는 것입니다.

1등급(Class 1)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거래 활동 및 유사한 운영을 포함합니다.

2등급(Class 2)은 디지털 자산 토큰 제공 및 증권형 토큰 제공(Security Token Offerings), 초기 거래소 제공(Initial Exchange Offerings), 유틸리티 토큰 제공(Utility Token Offerings)과 같은 크라우드 펀딩 활동을 포함합니다.

3등급(Class 3)은 기술을 사용하여 가상 자산의 이전, 저장 또는 생성을 용이하게 하는 연관 활동과 결제 솔루션 및 디지털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포함합니다.

한편, 고객 지원, 연구 개발 및 기술 지원, 사이버 보안 서비스 데이터 센터, 블록체인 관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 활동과 같은 지역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도 ODAL 정책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 우리는 해양 디지털 자산 라이선스(ODAL)에 대한 신청을 이미 수락했으며, 1등급 라이선스와 지역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미 승인했습니다."라고 판간다만은 말했습니다. *[Cont. page 5]*

바타안 자유무역지대, 아시아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할 준비 완료

[Cont. from page 4]

판간다만은 FAB 내 사무 공간 개발을 강조하며, 가상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핫데스크 및 신생 산업을 위한 임시 작업 공간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중반쯤에 사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가상 사무실과 공동 작업 공간을 위해 4층 건물의 절반을 배정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하 광섬유 케이블 네트워크가 이미 완료됨에 따라 향상된 인터넷 연결이 자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귀하의 산업 요구 사항에 적합한 대역폭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라고 판간다만은 말했습니다.

판간다만은 시민들의 도움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를 통해 AFAB의 사명인 블록체인 산업이 규제된 네트워크 내에서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10/03/625568/freeport-area-of-bataan-gears-up-to-lead-asias-blockchain-industry/

필리핀 '24, '25 성장, 동남아시아에서 2위 빠른 성장 예상 – 아므로

베트남이 선두를 차지하며 아세안을 능가할 것

October 04, 2024 | Ian Nicolas P. Cigaral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필리핀은 아세안+3 거시경제 연구소(Amro)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2025년에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다음입니다. Amro는 필리핀의 성장 예측치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INQUIRER.NET

목요일에 발표된 아세안+3 지역 경제 전망의 분기별 업데이트에서 Amro는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24년 6.1%, 내년 6.3%로 유지했습니다.
이 경우 Amro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면 필리핀은 아세안에서 두 번째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제국이 되며, 2024년과 2025년 각각 6.2%와 6.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여전히 아세안을 능가할 것이라고 Amro는 언급하며, 올해와 내년에 대한 아세안 지역의 평균 GDP 성장률을 각각 4.7%와 4.9%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마르코스 행정부의 67% 공식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2025년에는 6.57.5% 목표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Amro의 수석 경제학자인 호이 에이 코르(Hoe Ee Khor)는 기자 회견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은 증가하는 정부 지출과 투자, 그리고 서비스 수출의 확대에 의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잘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1%가 정부의 목표보다 낮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라고 코르가 말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필리핀 경제는 2분기에 6.3%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 수치가 소비 성장률이 4.6%로 필리핀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속도인 점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기저 효과에 의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8월에 정책 금리를 6.25%로 25bp 인하하여 엘리 레몰로나 주니어 총재가 "점진적" 완화 사이클이라고 부른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BSP는 차입 비용을 낮춤으로써 은행 대출과 소비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Amro의 코르는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이 BSP를 포함한 지역 중앙은행들이 GDP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수가 증가하면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최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극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의 나머지 국가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83343/ph-24-25-growth-to-be-2nd-fastest-in-se-asia-amro

필리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여지가 있다 — IMF

October 04,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logo is seen outside the headquarters building in Washington, U.S. — REUTERS

필리핀의 재정 통합이 올해 둔화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여전히 새로운 세금 조치를 도입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정책 측면에서 우리는 2024년에도 재정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보지만, 이전 예측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완만할 것"이라고 IMF 미션 책임자인 엘리프 아르바틀리 삭세가르드가 수요일 기자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지출 측면에서 실제로 공공 부문 지출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더 높은 수익으로 상쇄되거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MF는 올해와 2025년의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는 이 재정 적자의 정의가 국가 정부(NG)의 정의와 다르며, 적자를 포착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적자 정의에 따르면, 2023년 6.1%에서 올해 5.6%로 줄어들고 2025년에도 5.6%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국가 정부(NG)는 올해 GDP의 5.6%에 해당하는 예산 적자 상한선을 P1.48조로 설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적자가 5.3% 또는 P1.54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MF는 더 많은 재정 공간을 창출할 추가 세금 조치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기적으로 재정 통합 계획은 여전히 적절하며, 세수 증대와 지출 개혁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계획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라고 삭세가르드가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충분하고 신속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옵션으로 소비세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작년, 당시 재무장관인 벤자민 E. 디오크노는 "정크푸드"에 대한 소비세와 단 음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세금은 시행 첫 해에 최대 P760억을 생성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DoF)는 올해 초에 의회에 계류 중인 세금 조치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세금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영역은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라고 삭세가르드가 말했습니다.

작년, DoF는 필리핀이 12%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VAT 세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가장 낮은 VAT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나라는 VAT에서 평균 P7230억을 수집했지만 이는 예상 VAT 수집액의 약 40%에 불과합니다.

삭세가르드 씨는 탄소세를 추진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필리핀의 전력 및 전기 비용은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관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을 포함한 다양한 탄소 가격 책정 옵션을 연구해 왔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명시적인 탄소 가격 책정 형태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경제로서 필리핀은 탄소세에 대해 생각할 때 다양한 고려사항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촉진하고 오염 에너지원에서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소비 패턴을 전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라고 삭세가르드가 말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것은 논의 테이블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필리핀 IMF 대표인 라그나르 구드문드손은 정부가 세금 인센티브 부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Cont. page 7]*

필리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여지가 있다 — IMF

[Cont. from page 6]

"우리가 권장하는 또 다른 것은 세금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인센티브가 추가 투자와 성장의 동력을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투자들이 필리핀에 유입되고 성장에 기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 가능하게 되면, 예를 들어 소득세를 통해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중립적인'

내년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적 기조가 "중립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정 정책에서의 자극이 축소적이지도 않고 과도하게 확장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엘리프 아르바틀리 삭세가르드(IMF 미션 수장)가 말했습니다.

금융 조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필리핀 중앙은행(BSP)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계속해서 완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는 중앙은행이 4분기에 최대 50bp까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통화 위원회의 남은 회의는 10월 16일과 12월 19일입니다.

"준비금 요건 인하를 포함한 이러한 모든 금융 부문 개발은 보다 유리한 금융 조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년에 투자와 민간 소비의 회복을 지원하며, 재정 측면에서 더 중립적인 상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삭세가르드가 덧붙였습니다.

BSP는 이달 말 대형 은행의 준비금 요건 비율(RRR)을 9.5%에서 7%로 250bp 인하할 예정입니다.

느린 재정 회복

필리핀의 재정 상황 회복은 점진적일 것이라는 Fitch Solutions의 자회사인 BMI의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BMI는 제안된 6.352조 페소 규모의 국가 예산이 공공 지출 증가를 나타내며, 이는 재정 통합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필리핀의 재정 통합 노력이 뒤로 밀릴 것입니다. 필리핀의 재정 회복은 이미 지역 동료 국가들에 비해 뒤처졌으며, 최신 예산은 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BMI는 덧붙였다.

BMI는 정부가 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올해 예산 적자가 GDP의 5.9%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BMI는 정부가 부채 수준을 낮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이 2028년까지 GDP 대비 공공 부채를 55.9%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후 3년(2026-2028) 동안 적자를 GDP의 3.6%로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BMI는 밝혔다.

"그러나 이는 거의 1.0% 포인트의 지출 삭감을 필요로 하며, 현재 행정부가 경제 계획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최신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정부의 미지급 부채는 15.55조 페소로 감소했다.

상반기 동안 부채 대비 GDP 비율은 60.9%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부채 비율이 GDP의 60.6%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신, 우리는 예산 적자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4.6%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부채는 더 천천히 감소하여 2028년에는 GDP의 58.8%에 이를 것입니다."

한편, BMI는 정부가 수익 목표를 초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수익 목표는 상대적으로 낮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에 GDP의 16.1%에서 2025년에는 15.8%로 수익 수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내년 경제적 배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다소 보수적입니다."

8개월 동안 수익 수집은 지난해 2.58조 페소에서 2.99조 페소로 15.91% 증가했다.

"필리핀 정책 입안자들은 과거 2년 동안 보았듯이 수익 목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수익 수집이 GDP의 약 16%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15.8% 예상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만약 수익이 우리의 예측을 초과하면, 우리는 더 작은 예산 적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0/04/625759/phl-has-room-for-new-taxes-imf/

필리핀 외국 상공회의소(Joint Foreign Chambers of the Philippines)는 2024년 10월 24일 파사이시의 마리엇 그랜드 볼룸에서 제13회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을 개최합니다.

13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인적 자본의 업스킬링과 업스케일링에 대한 관점을 탐구하여 필리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Level Up: Upskill. Upscale. Uplift."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인구 통계의 변화와 빠른 기술 발전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기회와 도전에 대해 탐구하며, 농업, 광업, 제조업 및 기타 신흥 산업과 같은 주요 경제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비한 인력을 양성하고 필리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개혁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CCP는 이번 행사에 10석이 있는 테이블을 마련했으며, 각 티켓은 할인된 가격인 5,500 페소에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4를 방문하시거나, 본 행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632-8885-7342로 연락하시거나 이메일(info@kccp.ph)로 문의하시거나 Ms. Chi(0917-801-5920)와 Ms. Sang(0915-888-729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UPCOMING EVENT]

A Joint Event of Rotary Intl D3810-BNI– KCCP |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행사

October 18, 2024 | SMX Convention Center, Pasay City

필리핀 로컬 비즈니스 단체들(**국제 로터리 마닐라 3810지구 회장단, BNI PHILIPPINES**)과 함께 오는**10월 18일 오후 5시 30분에 파사이 시 SMX 컨벤션 센터 2층**에서 **비즈니스 매칭/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등록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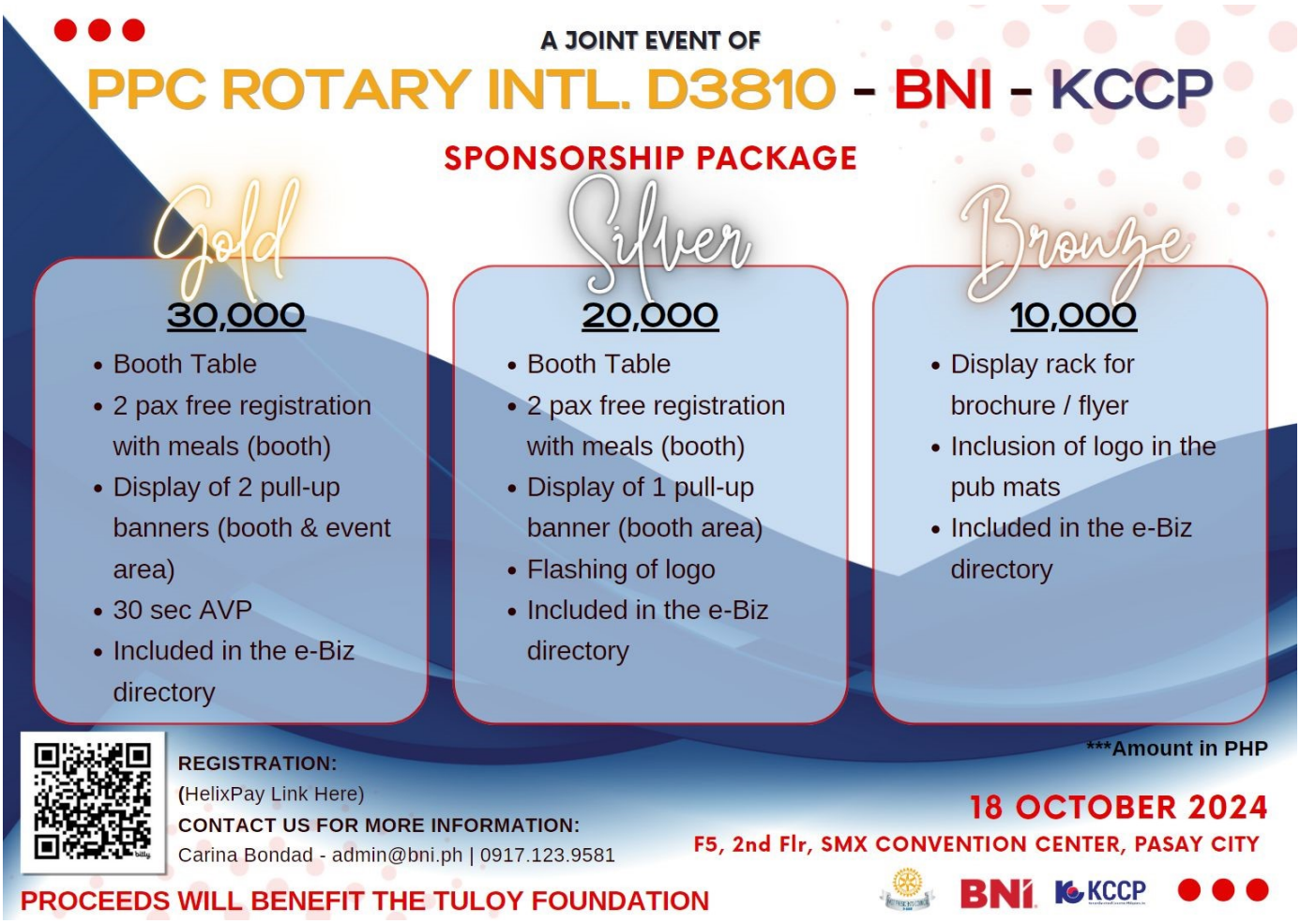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400명 이상의 국내외 사업가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투자자 및 바이어 등을 연결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행사 후원업체들을 위해 회사와 제품 등을 소개하고 상담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으며, 행사 이후에도 각 단체 회원 모두에게 E-magazine으로 계속 홍보 지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모든 참석자 간의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및 경품 추첨도 준비되어 있으며,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현지 복지재단에 기부 예정으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KCCP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권장합니다.

KCCP 회원의 **참가 등록비는 2,000페소**입니다(식사, 음료 및 참가 키트 포함). 이번 행사에 관한 등록이나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 KCCP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32-8885-7342(사무실) 또는0917-8015920 (Ms. Chi) / 0915-8887296 (Ms. Sang)**) 또는 이메일**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